

국보관

동계불두

국보

동으로 제작된 머리 부분은 의술을 관장하는 부처인 약사여래상의 일부였습니다. 68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나라시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스카 지방의 야마다데라 절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 상이 조성될 당시에는 아스카가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1181년에 다이랴노 시게히라(1158~1185년)가 이끄는 다이랴 가문의 군대에 의해 고후쿠지 절은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후 재건 과정에서 고후쿠지 절의 승려들이 이 불상을 야마다데라 절에서 고후쿠지 절로 옮기고 동금당(東金堂)에 안치했습니다. 이 상은 동금당의 본존으로서 2세기 이상에 걸쳐 모셔져 있었습니다.

1356년에 동금당이 소실되었을 때는 무사히 구해낼 수 있었지만, 1411년에 동금당이 다시 화마에 휩싸였을 때는 건물 내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화재의 열기로 재료인 동이 녹아 내리면서 머리 부분이 떨어져 좌측 얼굴이 파손되었고 컛불이 부러졌습니다.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머리 부분은 결국, 사라진 상을 대신하여 1415년에 안치된 현재의 본존 대좌 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존재는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1937년 동금당의 해체 수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머리 부분과 함께 보관되었던 목관에 1411년 화재의 경위가 적혀 있었던 덕분에 이 머리 부분의 유래도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하쿠오 시대(7세기 후반~8세기 초)의 불상은 대부분 크기가 작아서 그 양식을 바탕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제작연대가 확실히 밝혀진 실물 크기의 불상이 비록 일부라도 발견되었다는 점은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역사적 중요성과 예술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 머리 부분은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불상의 일부만이 국보로 지정된 예는 극히 드뭅니다.